

14 목사와 고난(삶)을 나누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성경말씀: 빌4:14-23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 바울의 기쁨(4, 16), 빌립보서 안에는 적어도 16번이나 기뻐하라는 말이 나온다.

왜? 그는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만족의 비결: 1. 하나님의 섭리(10), 전혀 예상하지 못한 선물, 2. 하나님의 파워(13)

이제 마지막으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는 성도들에게 감사를 보낸다. <목사와 고난을 나누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과 고난을 나누었다(14).

나누었다(1). communicate, 함께 교통하였다(15-16).

고난을 나누었다: 지금 옥에 갇혀 있다. 빌립보 성도들의 선물, 고난을 나누는 것이다.

바울의 말: 잘하였다(14). 결코 돈 보내 줘서 고맙다는 것이 아니다. 그는 부족함이 없다(18).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였으므로 잘하였다고 하는 것이다.

목사에게 잘하라고 하는 말처럼 들릴까 봐 조심스럽다. 그러나 성경을 그대로 강해한다.

좋은 목사 좋은 성도의 관계, 하나님이 이를 어떻게 보시고 복을 주시는지 말하려 한다.

10절에서 그는 그들의 돌봄에 대해 언급함, 이것이 다시 활기를 띄었다.

이것은 겨울이 지나고 봄에 꽃이 다시 피를 뜻한다.

이것은 투자와 비슷하다(14-17), 투자하면 열매가 생긴다(17).

성도들이 사역자를 돌본 것은 투자이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것은 희생이다(18). 영적 희생물이 있다(롬12:1-2; 히13:15).

먼저 희생에 대해 이야기한다. 아픈 것이다. 헌금하고 시간 내서 봉사하는 것은 아픈 것이다.

그 아픔이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다(18)

실제로 성도들의 선한 행위는 주님께 드리는 희생물이다(히13:16).

희생물은 제사장이 바친다. 그러므로 빌립보 성도들은 제사장으로서 주님의 일을 위해 희생물을 드림 (벧전2:5)

말1:6-8,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 백성들의 해이한 정신 상태, 하나님을 값싼 존재로 여기지 말라.

바울은 이것을 단순히 빌립보 성도들의 헌물로 보지 않았다. 하늘의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보았다(19).

“너희가 나의 필요를 채워 주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너희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나의 한 가지 필요 만족, 하나님은 너희의 모든 필요 만족, 너희는 가난함 속에서 내 필요 만족,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모든 필요 만족”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희생할 때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욕심을 채워주지 않는다. 그러나 필요를 채워주신다.

목사와 성도들 그리고 교회의 관계

지난주 홍문중 의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연설, 국가 현황이 아니라 교회가 가야 할 길 외침

젊었을 때 미국 리버티 대학(Fundamental Baptist College)의 제리 팔웰 목사 의정부 방문, 아마다

통역, 그 뒤 초청을 받아 목사가 되기 위해 1년 동안 그 대학과 그 대학의 Thomas Road 침례교회를 다님, 뜻밖에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연설을 함, 연설의 대부분은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1. 나는 장로교인이지만 미국식 침례교가 한국 기독교의 살 길이다. 침례교회가 장로교/감리교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

2. 나도 리버티 대학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썼다. 그들은 그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라.

3.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성경대로 믿고 살아라 등.

왜 그분이 이런 연설을 했는지 나는 전혀 모른다. 참으로 주님은 묘한 분이시다.

그분의 주장: 21세기 한국 교회가 살려면 미국식 근본주의 침례교회를 해야 한다.

누구에게서 배웠는가? 리버티 대학의 제리 팔웰 목사(Jerry Falwell, 1933-2007) (*)

1955년, 22살에 Thomas Road Baptist church 설립(35명), 버지니아 주 린치버그의 메가 처치, 현재 24000명, (*)

1967년 린치버그 크리스천 아카데미, 1971, 리버티 대학, 세계에서 가장 큰 크리스천 대학, 15000 명(on campus), 94000명(off campus), (*)

그는 그 당시 미인가 학교인 미조리 주 스프링필드에 있는 성서침례신학교 졸업
강력한 보수 우파 목사, 킹제임스 성경 사용, 나중에 남침례교로 가면서 근본주의 약화
레이건 대통령 등에게 큰 영향을 미침(*), 가는 곳마다 부흥회, 애국 운동(*)

저기에는 유명한 교수 대학원장이 있었다. Harold Wilmington(*)

Wilmington's guide to the Bible(1248쪽, 스트롱 콩코던스 1968쪽)

Elmer Towns, 공동 설립자, 수많은 책들

그의 아들이 운영한다. 여전히 트럼프 등 초청해서 강연(2017년 5월 13일 졸업식, 보수 우파) (*) (*)

미국의 정상적 침례교회에는 좌파 리버럴이 없다. 기독교 대학과 교회가 바른 가치 위해 연설
우리나라에는 박영선 목사님, 정수영 목사님 등이 다녔다.

한 사람의 목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바울의 경우처럼 목사 한 사람으로 부족하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삶을 나누는 동료 협력자들이 필요하다.

목사들을 위해 교회가 해야 할 일: 가장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어야 한다. 갈6:6

내 경우는 바울처럼 자비량 선교/목회: 이것은 바울이나 나처럼 특별한 경우

바울은 분명하게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이 복음의 열매를 먹어야 한다고 말함(고전9:13-14)
로마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모금(롬15:25-27)

그러므로 교회가 목사들을 합당하게 대우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경우를 보면 목사가 자기의 생활비를 교회에 의존하지 않으면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사람마다 다르고 교회마다 다르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 한 사람의 목사가 수많은 사람들을 바꾼다.

그 목사를 위해 주변의 성도들이 그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 주신다. 단순히 목회자를 도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도운 것이다.
엘리아의 사역, 아합과의 싸움, 앞으로 비가 오지않을 것이다. 왕상(17:1), 그릇 시냇가, 까마귀, 시냇물
결국 시돈의 사르밧으로 피신함, 거기서 사르밧 과부를 만남. 요청함(10-11).

과부의 말(12), 엘리아(13), 이것 대단히 힘든 것, 약속(14), 성취(15-16)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 헌금을 한다. 쉬운 일이 아니다. 5월의 미디어 선교 헌금

그런데 헌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하나님의 일이 진척될 뿐만 아니라 영적 육적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나님의 회계 장부에 기록된다(17).

빌립보서 총정리

모든 교회에는 문제가 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한 마음, 한 생각을 가져야 한다. 모든 문제가 망명과
생각에서 생긴다.

1. 매일 아침 일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드린다.
2. 그리고 규칙적으로 성경 읽기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한다.
3. 하나님께 단일한 마음과 생각을 달라고 기도한다(그리스도의 생각 2장).
4. 하루 종일 살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예의주시한다.
5.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억한다(빌4:8)
6. 만족하고 사는 것을 기억한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약속
8. 빌4:5-7, 9. 목사와 성도가 삶을 나누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신다.